



전국최초시범사업 '마량항'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



노태영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어항공사과장

1. 전국 첫 시범 사업.. "관광어촌 모델" 준공

지난 2006년 9월 29일 오후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, 이영호 국회의원, 박준영 전남도지사, 황주홍 강진군수등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최초 시범사업인 "마량항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공사" 준공식을 가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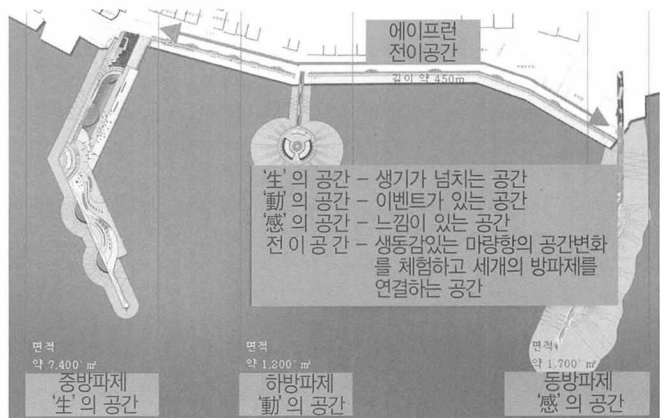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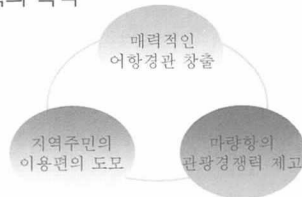
2. 마량항 어촌어항복합공간 개발동기

마량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004년 5월 1일 수립된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에 따라 I, II, III모델중 I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2월16일 착수하여 2006년 9월 13일 준공까지 1년 7개월 동안 총사업비 112억 원을 투입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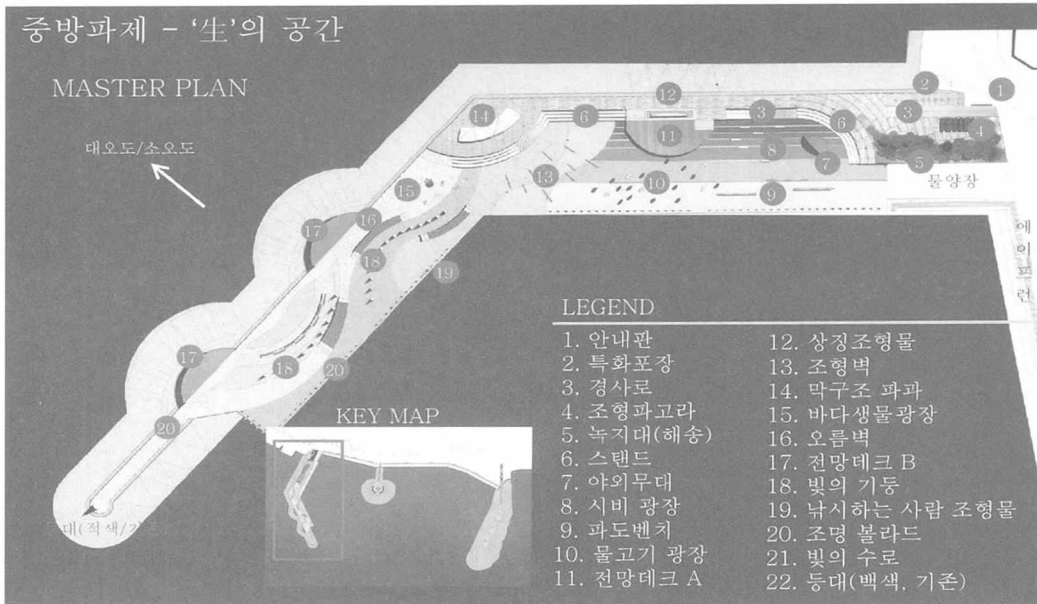
3. "生動感"이 넘치는 마량항

- 生의 공간 - 생기가 넘치는 공간
- 動의 공간 - 이벤트가 있는 공간
- 感의 공간 - 느낌이 있는 공간
- 전이 공간 - 생동감 있는 마량항의 공간변화를 체험하고 세 개의 방파제를 연결하는 공간

계획의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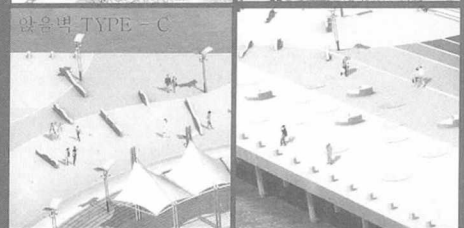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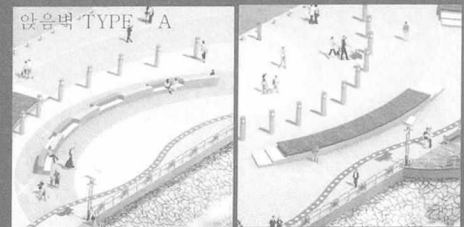


중방파제는 잔교시설을 하여 부지를 형성, 공간을 확보한 후 친수공간을 조성한 '생'의 공간으로서 천연기념물 제172호인 가막섬과 주변 청정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과 휴식공간인데 내향 및 외향의 경관을 전망할 수 있도록 전망데크를 설치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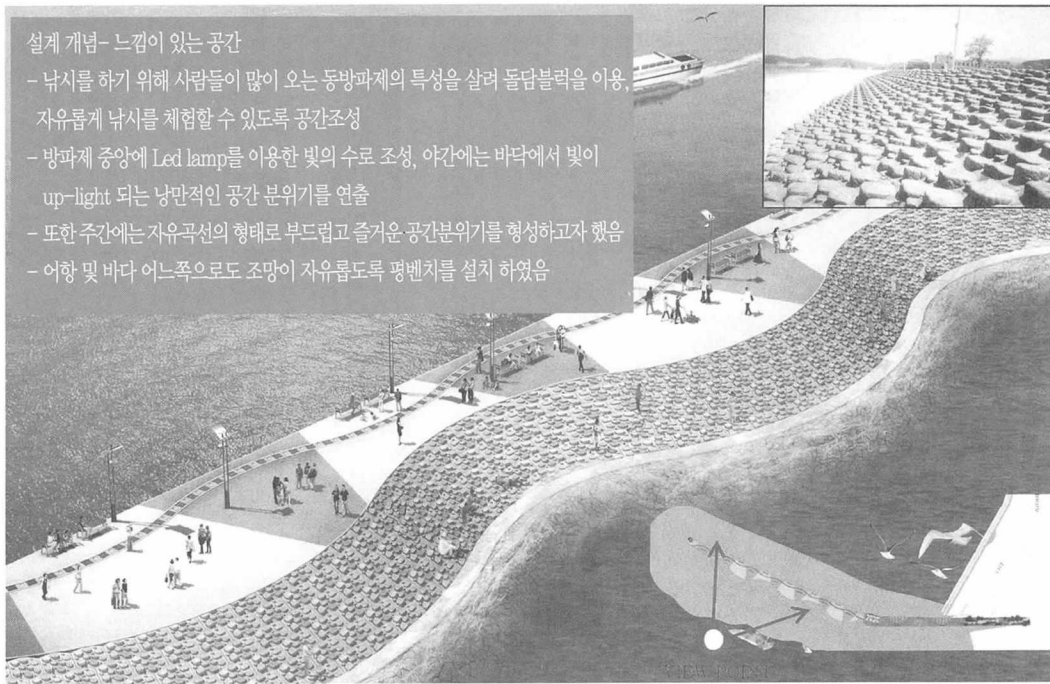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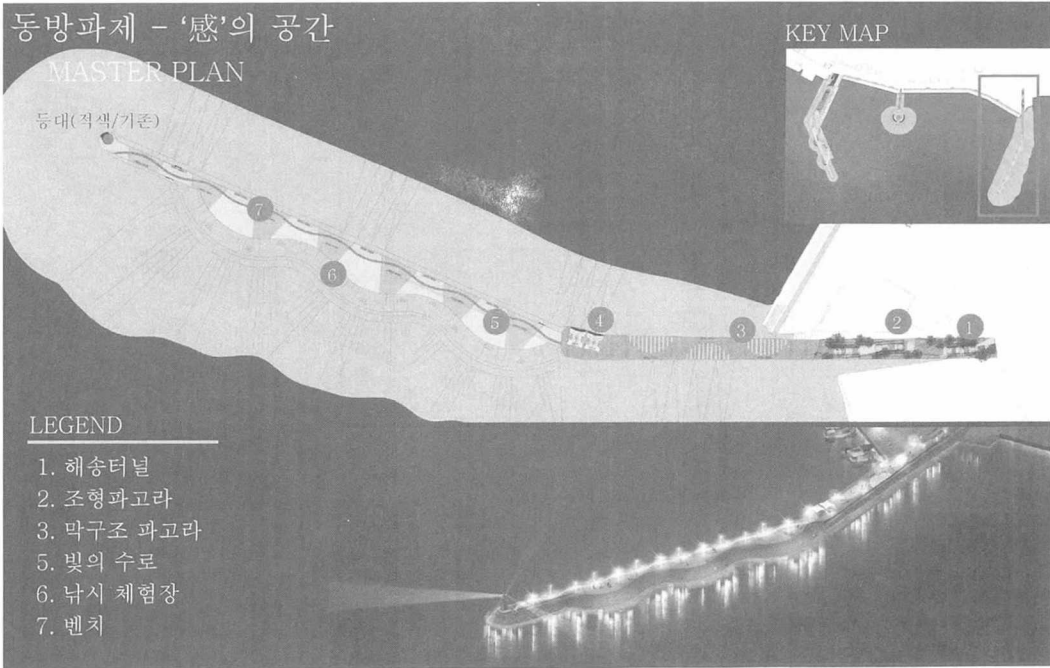


설계 개념-生氣가 넘치는 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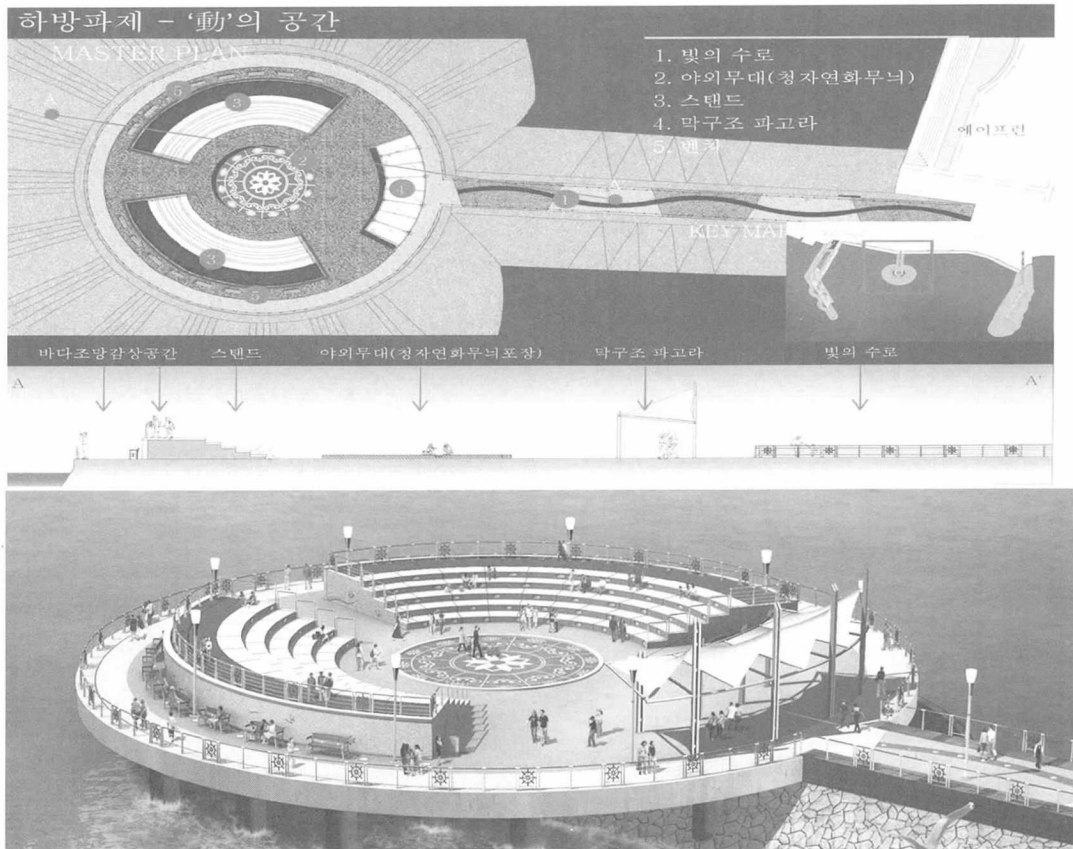
- 대오도, 소오도 및 바다경관, 어항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공간의 조성, 경관의 대상을 명쾌히 하여 방향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
- 산책 및 낚시 등 현재 방파제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태 수용
- 공간의 변화감과 표정있는 공간분위기 연출을 위해 자유곡선과 바다를 모티브로한 바닥포장 디자인
- 단차(1.2m)를 활용하여 스탠드를 도입하되, 공간별로 스탠드의 형태를 다르게 하고 장애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
- 충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되, 단순한 벤치보다는 다양한 모양과 디자인의 앉음벽(Sitting Wall)을 설치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아울러 안전성 제고



동방파제는 '感'의 공간으로서 산책과 낚시 등을 할 수 있는 정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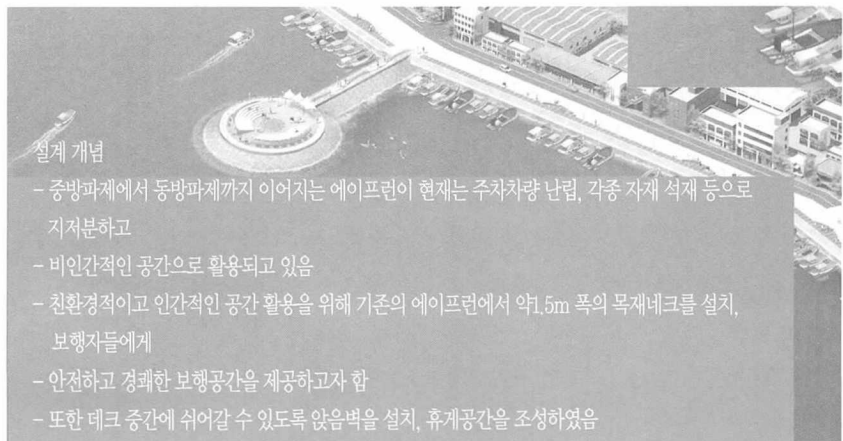


하방파제는 '動'의 공간으로서 각종 행사, 이벤트, 축제시 열린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 두부구간에 지름 36m의 원형 잔교를 형성한 후 무대공간을 만들었으며, 무대주변에는 스탠드를 설치하여 객석의 기능과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.



중방파제와 하방파제 그리고 동방파제의 세 개의 방파제를 서로 연결하여 공간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산책로인 데크를 설치하였다.

또한, 야간의 조명은 LED조명 연출 시스템



을 이용해서 빛의 수로와 은하수물결이 연속적이고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하는 빛의 파노라마가 연출되며, 바닥에서 빛이 발산되는 낭만적인 공간 분위기가 된다.

4. 사업 완공 후 기대효과


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우리 어촌으로 흡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, 마량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, 놀거리, 쉬거리 등 생(生), 동(動), 감(感) 넘치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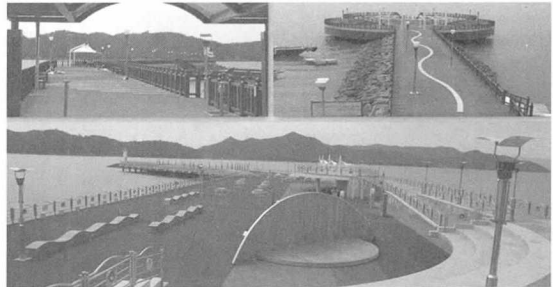
- 인근식당 주민의 말에 따르면 마량항 준공후 손님이 20%나 늘었다고 하며, 현재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지역관광코스에 계속하여 소개되고 있고

- 각종 지역모임, 동아리, 주부클럽행사 등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진 열린행사가 매주 토요일 개최되고 있다.

또한, 마량항은 어촌어항에 대한 친수관광사업을 전국최초 시범적으로 추진한 어항으로써, 해양자원을 보유한 타 행정기관이 적극적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등 어촌어항이 해양관광시대의 중심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.

- 강원도 강릉시, 경기도 화성시, 전남 고흥군 등 해양관련 담당부서의 벤치마킹요청에 따라 현장안내와 자료제공 한 바 있으며,

-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시 전화문의중에 있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국에 알려질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“마량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”이 강진 청자도요지와 더불어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. 



▲ 시설물별 완공 전경

